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  
알럽바이블 대본집

Ep.004

커다란 배를

만든 노아

(창세기 6:9~9:17)



세월이 흘러서 땅에는, 사람들이 가득해졌어요.  
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새까맣게  
잊어버리고 늘 나쁜 짓만 했어요.  
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서로 다투기 바빴죠.

하나님께서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화가 잔뜩 나셨지만  
딱 한 사람!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!

그 사람의 이름은 ‘노아’였죠.  
하나님께서 하루는 노아를 부르셨답니다!

**“노아야, 노아야.”**

**“아니,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?”**

**“그래그래. 이 더러움 가득한 세상에서  
혼자만 의롭게 살게 쉽지 않을텐데..고생이 많지?”**

**“고생은요. 저야 뭐,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.  
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 뿐인데요. 헤헤.”**

**“노아야, 세상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구나.  
내 더 이상은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다.**



**그래서 나는 이 땅에 아주 아주 아주 큰 비를 내려서  
땅 위의 모든 생명들을 쓸어버릴 작정이란다.”**

**“예~? 이 땅에 홍수가 난단 말씀입니까?  
그러면, 사람이나 동물이나 꼼짝없이 다 죽게 되는 건가요?”**

**겁에 질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**

**“노아야, 너는 걱정할 것 없다.  
너는 오늘부터 큰 배를 한 척 만들거라.**

**누가 봐도 입이 짝~ 벌어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 
큰 배가 필요하단다.  
홍수가 시작되면 너와 네 아내, 네 자녀들의 가족은  
배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.**

**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동물들을 종류별로  
암수 한 쌍 씩 배에 태우거라.  
배에 탄 생물들은 죽음을 피할 것이다.  
빨리 움직이지 않고 뭐 하느냐?  
시간이 없어요, 시간이...!”**

**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.  
하루 하루 쉬지 않고 일해서 길이가 135m나 되고  
높이는 14m나 되는 3층짜리 거대한 배를 지었죠.**

하지만 아직 세상에는 큰 비는커녕 햇볕만 쨍쨍했어요.

“하하하...! 저기 노아 아저씨 좀 보!  
맨 땅 위에 배를 짓고 있다니! 그렇게 하나님, 하나님  
노래를 부르시더니만 이젠 정신이 좀 어떻게 된 모양이군!”

“노아 아저씨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, 앞으로 큰 비가 온다나 뭐라나?  
아니, 저렇게 큰 배를 띄우려면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할텐데!  
그럼 뭐,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다는거야? 헤헤헤!”



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지나갔지만  
노아는 우직하게 배를 만들었어요.

그리고 마침내 배가 완성되자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 
온 세상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불러 모아서 배에 태웠답니다!

“기린, 펠리컨, 올빼미, 카멜레온, 개미핥기...  
둘 넷 여섯 여덟 열!  
이젠 열추 다 탄 거 같구나.  
어휴 냄새. 온갖 녀석들이 섞여 있으니  
정신이 없구나 정신이 없어. 허허.”

모두가 배에 타자 하나님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어요.  
그리고 며칠 뒤, 정말 온 세상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.

무려 40일동안이나 비가 어찌나 많이 내리던지!  
빗방울이 모여 웅덩이가 되고, 웅덩이가 모여 강이 되고,  
강이 모여 호수가 되고, 호수들이 모여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!

땅 위에 가장 높은 산들마저 물에 잠길 정도였죠.





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은 뒤늦게서야 후회했지만  
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.  
모든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고 오직 배 안에 있는 사람과  
동물만이 안전할 수 있었죠.

그렇게 비가 그친 뒤로도 반년동안이나  
배는 물위에 둥둥 떠 있었어요.  
노아는 바깥의 물이 얼마나 배바졌는지 궁금해졌죠.  
그래서, 까마귀를 불렀어요.

“까마귀야, 어디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네가 한 번 나갔다 와보거라.”

“까악 까악”

하지만, 까마귀는 좋은 심부름꾼이 아니었어요.  
워낙 튼튼한 날개를 가진 탓에 몇날 며칠이고  
날아다니느라 돌아오지 않은거죠.

“에잇 까마귀 이 녀석! 에휴, 그 녀석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.  
안 되겠다, 비둘기야 이번엔 네가 한번 다녀와 보거라.”

비둘기가 나가 보았더니 온 세상이 여전히  
물에 잠겨서 앓아 있을 곳이 없었어요.  
그래서 금방 다시 돌아왔죠.

그리고 일주일 뒤

**“비둘기야, 다시 한번 나갔다 와 보거라.  
전보다는 물이 좀 빠졌을게다.”**

**“꾸.꾸.”**

비둘기가 나가 보니 물의 높이가 정말 낮아져서  
이번엔 나무 윗부분 정도는 물 위로 드러나 있었어요.

그래서 비둘기는 올리브나무 잎을 입에 물고 배로 돌아왔죠



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

“비둘기, 비둘기 어디있느냐?  
자꾸 너만 시켜서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나가보겠니?”

“구구. 구구.”

비둘기가 나가보니 물이 거의 다 바바져서  
마침내 온 세상이 드러나 있었어요.  
신이 난 비둘기는 세상 이곳 저곳을 구경하느라  
배로 돌아오지 않았죠.

그제야 노아는, 비로소 배에서 나갈 때가  
되었음을 깨달았어요!

**“이제 마른 땅을 밟을 때가 된 거 같구나.  
하나님, 저희가 밖으로 나가도 되겠습니까?”**

**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**

**“이제 너의 온 가족과 모든 동물들은 배에서 나와도 좋다.  
그동안 답답했지?”**

**모두가 차례차례 배에서 나왔어요.  
사람과 동물 모두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어 기뻐했고  
무사히 살아남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렸죠.**

**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 노아 덕분이었어요!**

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.

**“노아야,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.  
앞으로는 이전처럼 여름과 겨울,  
봄과 가을,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란다. 내가 약속하마!”**

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증표로 맑게 갠 하늘에  
무지개를 띄워주셨습니다!

여러분, 비가 오고나서 하늘에 예쁘게 뜬 무지개를 본 적이 있나요?  
그 무지개는 이 세상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 
약속의 표시였던 거예요.